

리젠, 툐젠 · 팬젠과의 통합 무산

임시주총서 통합 관련안건 부결 ... 리젠 통한 우회상장 좌절

리젠이 바이오벤처기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추진한 비상장 바이오벤처 툐젠 및 팬젠과의 통합이 무산됐다.

리젠 관계자는 6월16일 “6월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툐젠 및 팬젠과의 통합을 위한 감자와 주식교환, 선임 이사 선임 등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주식교환 안건 등의 부결로 인해 툐젠 및 팬젠의 리젠을 통한 우회상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주식교환 이후 팬젠 및 툐젠의 경영진은 리젠의 경영진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리젠 및 업계에 따르면, 안건이 부결된 이유는 시장 약세로 인해 주총 전날인 6월12일 리젠 종가가 1525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820원보다 낮아 차익실현을 원한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가 잇따랐고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대주주 넥스트미디어홀딩스측이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앞서 퓨처시스템도 미국 소재 바이오벤처 렉산 파마슈티컬로의 피인수 안건을 6월7일 주주총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최대주주 등이 반대해 관련 안건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0>